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 필 화 | 이화여대 대학원장

I. 머리말

최근 서울대 대학원 박사 과정 전기 모집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올해에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은 대학원 위기론이 각 대학교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새삼스레 인식되게 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 대학원 지원 미달의 사태는 가속화하는 교육시장 개방 추세 속에서 국내 학문 활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물음, 더 나아가 경쟁력은 고사하고라도 국내 학문이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절박한 물음으로 다가온다.

근래에 들어서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대학원'이라는 개념도 과거와는 다른 모호성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인가는 원론적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의 난맥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헤아려 보는 데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이 앞으로 대학원 교육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는 촉발점이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면서 원론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II. 대학원 교육 논의의 난제

지난 수년간 대학원의 양적 팽창이 급속화됨으

로써 대학원과 관련한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대학원 문제'를 깊이 분석해 들어가 보면 단지 지난 몇 년간 일어난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학원 단계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학원 문제는 한국에서 행해진 초·중·고등 교육이라는 각급 단계별 문제가 누적된 결과이면서 동시에 지식 생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지난 30~40년간 한국 사회는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고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어 왔다. 한국의 교육은 양질의 인적 자원을 생산해 냄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순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급격한 변동의 거센 물결 속에서 교육 활동 자체의 내용적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대부분의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역시 학위병(Diploma Disease)을 겪어 왔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얻는 교양, 기술, 전문성보다는 학위라는 간판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맞추어 공급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학위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교육 관련 문제가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자리잡고 있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대학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파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사교육비

라는 재정적 비효율성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어떤 조건만 충족될 수 있다면 사교육비로 쓰이는 비용이 제도교육의 양적 팽창에 대응하는 질적 수준 유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마디로 교육문제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다 들어 있는 셈이다. 대학원 교육에는 이외에도 노동시장과 인력 수급의 문제, 개혁을 어렵게 하는 한국 사회 문화 전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 담론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 사회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적 생산 방식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따라서 교육 문제 해결은 우선 순위가 매우 높은 국가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의 최고 단계에 있는 대학원 교육은 가장 직접적으로 한국의 지식 생산과 인적 생산의 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원 교육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다음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대학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활동을 더 나은 표현이 없어 대학원 교육이라 지칭하기는 하지만 이를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라 지칭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들간 이념적·철학적 논의에 기초한 합의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필자는 교육학 이론에서 대학원 교육론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만나 보지 못했으며, 지난 수년간 유통되고 있는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용어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용어와 동일시되거나 혼용되면서 대학원을 교육과 연결하여 언급하는 것을 어색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교육·연구·봉사라는, 오늘에 와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대학 기능의 3대

요소를 융합시키는 것이 학부 교육보다 대학원 단계에서 더 가능한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법적으로는 대학원의 목적을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대학원 교육과 관련된 교육이념이나 철학의 문제는 최근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시장' 원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교육과 연구를 개인주의적 시장경제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 대학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둘째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연구나 행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모두 어렵게 하는 원인은 각 학문 영역과 분야의 특성이 다르고 전문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의 차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다른 방법론과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각 영역내 변화의 속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기초학문과 실용학문간의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같은 계열에서조차 상호 소통과 협동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세분화되어 있는 개별학문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원 교육·연구가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일반론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가 없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노력, 즉 각 영역의 차이와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학문과 교육의 보편적이며 기본적 원칙에 입각한 정책 입안을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결단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셋째로, 지난 수년간 대학원 교육은 다음 <표 1>에 나타나듯이 전대미문의 양적 성장을 해 왔다. 대학원의 종류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고,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1조 참조).

대학원중심이라는 용어의 발생과 지원 방향은 일반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양산해 내면서 일반대학원의 상대적 빈곤을 가져왔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과 재교육 요구에 대학이 부응하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 종류의 대학원이 어떠한 분업과 체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교육 통계 중 전문·특수대학원 현황을 보면 분류 항목이지만 도저히 '분류'라고 할 수 없는 이름들이 고유명사 아닌 고유명사로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책개발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정보대학원 등 각각이 각 대학원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구분(Classification)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정보 관련 대학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열된 구분의 총수는 2002년의 경우 도합 282개이며, 이는 1995년 86개에서 3배가 훨씬 넘는 증가를 보여 준다. 새롭게 설립하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어떤 공통성에 근거하여 범주화 할 수 없다면 그 설립 근거와 교과과정, 교수의 자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단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학문 영역의 확대와 그 변화의 지형도를 엿보게 하는 일례일 것이다.

넷째로, 일반대학원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에 대한 기대는 매우 복잡적이다. 한편으로는 인력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대학원은 지식 생산의 정점에서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생산성에 대한 기대임과 동시에 그 방향성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학원은 한국 사회를 세계적, 장기적 시각에서 설명·분석하며 문

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연구 인력을 배출해 낼 의무를 갖고 있다. 그 의무를 충실히 해 나가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교육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요망 사항이다. 이는 한국의 지식 생산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느냐 하는 국가적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SCI나 SSCI 제출 논문이 그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는 학문 각 영역간, 특성간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모순이 내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인력 시장과 조응하는 대학원 교육과 한국에 바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우선 순위 설정에 입각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Ⅲ. 통계로 본 현황

대학원 교육의 양적인 팽창이 과거 30여 년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통계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의 대중화를 가져 온 학부 교육의 팽창과 비교해 볼 때, 대학원의 팽창은 그 비율에 있어서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70년부터 30여 년 만에 대학교의 수는 71개에서 163개로 약 2.3배 증가했지만 학생 수는 14만 여 명에서 177만 여 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표 1〉 참조). 대학원 학생 수의 증가는 1970년에 64개 대학원에 6,600여 명이 재적했던 데 비해 2002년에는 무려 945개 대학원에 26만 여 명의 재적 학생이 기록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약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학원 수는 약 15배 정도로 증가했다(〈표 2〉 참조). 교수수에 관한 통계는 『대학교육』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 수의 증가와 교수의 증원과의 관계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대학원의 팽창은 일반대학원의 성장이기보다는

〈표 1〉 대학교 숫자 및 재적 학생 및 교수 수

	1970년	2002년	증가 비율(%)
대학교 수	71	163	230
재적 학생 및 교수 수	146,414	1,771,738	1,21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2002

〈표 2〉 대학원 숫자 및 재적 학생 수

	1970년	2002년	증가 비율(%)
대학원 수	64	945	1,476
재적 학생 수	6,640	262,867	3,958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2002

〈표 3〉 2002년도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학교 수 및 석·박사 재적 학생 수, 여성 비율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학교 수	139	806
재적 학생 수	117,355	145,512
석사(여성 비율)	82,810(38.3%)	144,132(43.4%)
박사(여성 비율)	34,545(27.6%)	1,380(25.4%)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2002

전문·특수대학원에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 인한다. 일반대학원이 139개인데 비해 전문·특수 대학원은 806개이며, 재적 학생 수 별로 보자면 일 반대학원이 전체의 44.6%, 전문·특수대학원이 55.4%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의 수치를 1995 년과 대비해 볼 때 전문·특수대학원 수가 2.6배, 재학생 수가 3.1배 증가했다(〈표 3〉, 〈표 4〉 참조).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통계가 분리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야간 재학생 수 및 입학 정원의 수로 그 비율을 유 추해 본다면 75.4%가 야간, 즉 특수대학원에 재학 하고 있다. 휴학률은 일반대학원 석사 재적 학생의 15.2%, 박사 재적 학생의 14.3%, 전문·특수대학 원 야간 재적 학생의 12.7%, 전문·특수대학원 주

간 재적 학생 박사 과정의 11.7%, 석사 과정의 10.2%로 나타나고 있다(〈표 5〉, 〈표 6〉 참조). 휴 학의 이유에 대한 조사가 통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 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는 것이 아쉽다.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에서는 '첨단의 훈련 과 연구방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석사 학 위를 중심으로 하여 실용 지향적 영역의 전문 학위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입 지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에 대한 요 구가 여러 직업에서 점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선진 산업 국가의 예에서도 보면 대

〈표 4〉 전문·특수대학원 재적 학생 수

	1995년	2002년
학교 수	315	806
석사 수	46,972	144,132
박사 수	—	1,380

* 전문·특수대학원을 구분하여 통계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전문대학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2002

〈표 5〉 일반대학원 학생 휴학률

	재적 학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석사	82,810	70,228	12,582(15.2%)
박사	34,545	29,588	4,957(14.3%)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2002

〈표 6〉 2002년도 전문·특수대학원 석·박사 재적 학생 수 및 주·야간 휴학률

	주간				야간			
	재적 학생	재학생	휴학생	휴학률	재적 학생	재학생	휴학생	휴학률
석사	35,740	32,102	3,638	10.2%	108,392	94,600	13,792	12.7%
박사	1,380	1,219	161	11.7%	—	—	—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2002

학원 진학률의 팽창은 박사 과정보다는 석사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경영학이나 행정학과 같은 노동 시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 훈련 프로그램의 석사 과정 진학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전문·특수대학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비슷한 추세 of 일환이며 증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급증하는 대학원 수와 학생들이 충실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초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반대학원과의 교육적 분업이 보다 분명해지고 이에 입각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앞으로의 과제

대학원 교육은 학부 교육과 분리하여 논하기 어렵다. 선진국 명문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충실한 학부제 교육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부에서의 전공의 개념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대신, 대학원 교육에서부터 깊이 있는 전공 교육이 시작된다. 이러한 바탕에서 학제적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때로는 특수대학원과의 긴밀하고 활발한 연계와 협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학부 교육이 충실하지 못한 현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대학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바 대학원 교육에 한국 교육의 문제가 집약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전향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학원 이전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대학원 교육이 잘 될 수 있다는 의미를 패배적 논리나 자기 합리화의 논리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을 충실히 보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학부 교육의 토대가 단단한 교육 선진국 모델에 비추어 우리를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초로 한국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학부 교양 교육 단계에서 다져졌어야 할 비판적 사고력의 기초가 없는 것이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대학원 교육은 성인,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투자 효과는 매우 클 수 있다. 전문성과 올바른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길러 내어 정책 결정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한국 교육 문제 해결이 한층 쉬워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한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 하에 대학원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대학원 교육의 실재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을 구성하는 학생, 교수, 그리고 지식 내용(연구), 현재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각 영역과 분야에서 조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지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성은 역사의 산물이며 동시대인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원간의 연계와 교환학점 운영, 학·석사 연계 과정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장려가 필요하다.

셋째로 학문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기초학문 종사자들, 즉 학문의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에 종신하고자 하는 후속 세대를 찾아 지원해야 한다. 한국인의 두뇌 유출을 억제하고 한국 대학이 지식 생산의 장이 될 수 있으려면 우수한 연구자들을 선별하여 남게 해야 할 것이며 교수와 학생이 명장과 도제의 관계를 가지면서 학문 공동체, 학풍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에서 수학적 우수한 연구자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석·박사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하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현재 대학원 재적 학생 수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여학생들이 사회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40%를 차지하는 여성 인력의 활용 없이 한국의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 현장과 노동시장에서 여학생들이 받는 차별을 제거하는 노력이야말로 대학원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획일적인 개입이나 간섭보다는 자율, 창조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지식 생산과 인적 생산을 촉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장필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Hull대에서 여성교육철학 석사, Sussex대에서 여성과 발전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장 및 아시아여성학 센터 소장,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 '여성자문기구' 초대의장, 한국여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로 이화여대 대학원장, 여성신문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여성, 몸, 성」, 「경제위기와 여성실업대책 :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위하여」, 「Social Policy in East Asian Countries」의 다수가 있다.